

# 초·중등 국어 ‘문법’ 영역 성취기준의 용어 연구

김억조\*

## || 차례 ||

- I. 들머리
- II. 국어과 교육 과정의 ‘문법’ 영역
- III. 초·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 영역의 내용
- IV. 마무리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초·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 성취기준을 통하여 ‘문법’ 영역의 흐름과 용어 사용에 관해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국가 수준의 국어과 교육과정은 1955년 처음 제정되었으며 지금까지 열 차례 정도 개정·고시되었다. 이 중에서 ‘문법’ 영역이 설정된 것은 4차 교육과정부터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연구는 4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를 대상으로 삼았다. 이 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4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까지 7차례 개정된 국어과 교육 과정의 ‘문법’ 영역의 용어 변천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문법’ 영역의 명칭은 ‘언어’, ‘국어지식’, ‘문법’으로 변해 왔고 ‘내용’의 용어도 ‘내용’, ‘학년별 내용’, ‘학년군별 세부 내용’, ‘성취기준’으로 변해 온 것을 볼 수 있었다.

3장에서는 교육과정을 통해 ‘문법’ 영역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의 흐름은 비슷했으나 행위동사 사용에서 5차와 6차, 2011 개정과 2015 개정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서로 대립되는 흐름이었다. 즉, 초등학교에서는 하나의 성취기준에 하나의 행위동사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최근의 교육과정인 2011 개정과 2015 개정에서 두 개의 행위동사가 있는 겹문장 형태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중학교에서는 5차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국어국문학과.

와 6차 교육과정에서 겹문장 형태를 사용하다가 그 이후에는 홑문장 형태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개정·고시 되었는데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문법’ 영역 성취기준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제어: 국어 교과서(Korean Textbook), 문법 영역(grammar domain), 용어(terms), 성취기준(achievement standards), 일관성(consistence), 학년군(grade band), 2011 개정 교육과정(2011 Revised Curriculum), 2015 개정 교육과정(2015 Revised Curriculum).

## I. 들머리

이 연구는 초·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을 통하여 문법 교육의 흐름과 용어 사용에 관해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국가 수준의 국어과 교육과정은 1955년 처음 제정되었으며<sup>1)</sup> 지금까지 열 차례 정도 개정·고시되었다. 이 중에서 ‘문법’ 영역이 설정된 것은 4차 교육과정<sup>2)</sup>부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4차부터 6차까지는 ‘문법’이 아니라 ‘언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7차에서는 ‘국어 지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sup>3)</sup> 이는 ‘언어’라는 개념이 포괄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sup>4)</sup>

---

1) 실제 교과로서의 국어교육은 이미 1946년 9월 군정청 학무국에서 ‘교수요목’을 공포하면서 시작되었다(노명완 외 1996/2013: 58).

2) 교육과정의 명칭이 1차 교육과정부터 7차 교육과정까지는 ‘○차’라는 명칭을 붙였고 2007년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개정된 연도를 붙여서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 부른다. 이 연구에서 ‘교육과정’은 생략하고 ‘○차’와 ‘0000 개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3) 김광해(1997: 8-18)에 따르면 ‘언어 지식’은 언어 학습, 언어를 통한 학습, 언어에 관한 학습을 가리키며, 국어를 포함한 보편성을 지니는 지식 체계의 테두리 속에서 고찰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이러한 추상적인 대상으로부터 좀더 구체적인 대상으로 눈을 돌린 것이 ‘국어 지식’이다.

교육과정에서 영역별 '내용'은 2007 개정이 나오면서 '성취기준'이란 용어가 도입되었다. 이는 7차까지 사용되었던 '내용'이 '학습자가 국어 수업을 통해 도달해야 할 능력'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으며, 이러한 성취기준의 구현 여부는 교과서 검토의 심사 기준으로 작용하였다.<sup>5)</sup>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성취기준의 내용이 학습되거나 교수되기에 적합한지, 학년 수준에 맞는지 등에 대한 내용 적합성 분석(남민우·최숙기 2012, 노은희·최숙기·최영인 2012, 이순영·최숙기·서민정 2012, 양정실·가은아·민재원 2014), 성취기준의 진술 방식 유형 분석(서영진 2013), 성취기준 진술문 분석(이현숙·강현석 2013), 성취기준의 도입 배경이나 교육적 의미나 그에 대한 비판(정혜승 2007, 성열관·백병부·윤선인 2008)으로 진행되었다.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교육과정에 사용된 핵심어를 분석하거나 행위동사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대비한 연구는 없었다. 4차부터 2015 개정까지 '문법' 영역의 내용을 통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문법 교육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과정의 흐름에서 초등과 중등을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인식하는 만큼 일관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

4) 초·중등학교 국어 교육의 목적, 국어 교육의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의 변환을 의도 때문에 '국어 지식'이라는 용어로 수정하였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1998) 참조.

5) 이하 '성취기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Ⅱ.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

### 1. 명칭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교수·학습해야 할 교과 내용의 국가적 차원에서 공적으로 규정한 지침으로, 교과서의 개발, 현장 교사의 수업 실행, 평가 계획의 수립 등 제반 교육 활동의 근간이 된다. 국가 수준의 국어과 교육과정은 1955년 처음 제정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쳤는데 ‘문법’ 영역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변해 왔다.

〈표 1〉 ‘문법’ 영역의 명칭

교육과정	4차	5차	6차	7차	2007 개정	2011 개정	2015 개정
영역 명칭	언어	언어	언어	국어지식	문법	문법	문법

〈표 1〉에서처럼 ‘문법’이라는 영역 명칭은 교육과정에 따라 ‘언어’, ‘국어지식’이라는 용어로 달리 표현되었다. 4차부터 6차까지는 ‘언어’로, 7차에서는 ‘국어지식’으로, 2007 개정 이후에는 ‘문법’으로 사용되었다.

### 2. ‘내용’과 ‘성취기준’

‘내용’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육내용을 말하는데 4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까지 용어 사용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내용'의 명칭

교육과정	4차	5차	6차	7차	2007 개정	2011 개정	2015 개정
'내용'의 명칭	내용	내용	학년별 내용	학년별 내용	학년별 내용	학년군별 세부 내용	성취기준

〈표 2〉<sup>6)</sup>에서 보는 것처럼 4차와 5차에서는 '내용'<sup>7)</sup>으로, 6차, 7차, 2007 개정에서는 '학년별 내용'<sup>8)</sup>으로, 2011 개정<sup>9)</sup>에서는 '학년군별 세부 내용'에 '내용 성취 기준'<sup>10)</sup>으로,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sup>11)</sup>으로 표현되었다. 7차까지는 '내용'으로 표현되던 것이 2007 개정에 들어서 '학년별 내용' 속에 하나하나의 내용을 '성취 기준'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내용'의 자리를 '성취기준'이라는 용어가 대체한 것으로,<sup>12)</sup> 그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혹은 '학년(군)별 (세부)내

6) <표 2>에서처럼 '내용' 혹은 '성취기준'으로 표기된 것인데 '내용'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 곳에는 '성취기준'으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7) 4차와 5차 교육과정은 '가. 교과 목표 / 나. 학년 목표 및 내용(1.목표 / 2.내용) / 다. 지도 및 평가 상의 유의점'으로 구성되었다.

8) 6차, 7차 교육과정은 '1. 성격 / 2. 목표 / 3. 내용(가. 내용 체계 / 나. 학년별 내용) / 4. 방법 / 5. 평가'로 구성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4. 방법'이 '교수·학습 방법'으로 바뀌었다.

9) 이 교육과정은 총론 기준으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다. 하지만 각론인 국어과 교육과정은 2011년에 발표되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라 부르지 않고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줄여서 '2011 개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10) 2011 개정 교육과정은 '1. 추구하는 인간상 / 2. 학교급별 교육목표 / 3. 목표 / 4. 내용의 영역과 기준(가. 내용 체계 / 나. 학년군별 세부 내용) 5. 교수·학습 방법 / 6. 평가'로 구성되었다.

11) 2015 개정 교육과정은 '1. 성격 / 2. 목표 /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가. 내용 체계 / 나. 성취기준) / 4.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12) 성취기준은 7차 교육과정의 경우 '영역별 성취기준'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학년별 내용'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학습 내용 성취기준'으로 진술되었다. 7차 교육과정 이전의 교육과정은 교과별 내용을 제시하였고 7차 교육과정부터는 한

용'으로 표기되었음을 볼 수 있다.

성취기준이란 “각 교과별 교수·학습 활동에서 실질적인 기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등에 근거하여 각 교과별 목표와 내용을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능력과 특성의 형태로 진술한 것”이라고 개념 정의를 할 수 있다(백순근 외, 1998). 즉, ‘성취기준’이란 교과별 교수·학습 활동에서 교사와 학생이 가르치고 배워야 할 내용을 구체적이면서도 명료하게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차와 2007 개정에서는 ‘내용’ 항목에 ‘성취기준, 성취수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2015 개정에서는 제목에도 ‘성취기준’이라고 사용하고 있다.

### Ⅲ. 초·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 영역의 내용

이 장에서는 교육과정에 나타난 국어과 ‘문법’ 영역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핵심어와 내용

##### 1) 초등학교

먼저 초등학교 성취기준의 내용 중 4-6차는 다음과 같다.

---

단계 더 상세화된 수준에서 진술될 것이 요구되었다.(교육부 1997: 7)

〈표 3〉 초등학교 4-6차 성취기준 내용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4차	낱자, 소리	받침, 발음	낱말, 문장	문장, 확장 문장 종류 모양이 바뀌는 말	문장의 확장, 문장의 시제,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 높임, 받침의 발음	높임, 문장의 꾸미는 부분, 소리나 시늉을 나타내는 낱말, 낱말의 종류 (있어 온 것, 들어온 것), 낱말 (한 음절, 두 낱말이 합쳐진 것) 된소리 발음, 표기와 발음이 다른 것, 낱말 (뜻이 같고 느낌이 다른 것)
5차	낱자, 글자, 발음, 문장	발음, 문장, 시늉하는 말	표준어, 방언, 느낌이 다른 낱말, 높임말, 예사말, 문장 종류	모양이 바뀌는 낱말, 문장의 통사구조, 문장종류, 문장 구성	낱말의 구성, 문장을 이어주는 말, 문장의구성 문장의 확대	낱말의 구성 호응 관계 문장의 확대 문장 사이의 연결 관계
6차	낱자, 글자의 짜임, 낱말, 문장, 우리글자	글자와 발음, 흥내내는 말, 문장의 연결, 꾸미는 문장, 마음 상하게 하는 말 (고운 말)	글자와 발음, 높임말(예사 말), 문장의 통사, 문장의 종류, 낱말의 종류(고유어, 외래어)	모양이 바뀌는 낱말, 낱말의 합성, 문장 만들기(대치) , 문장의 종류 <sup>13)</sup> 호응 관계, 표준어와 방언	어법에 맞지 않는 말, 낱말의 요소, 문장의 구성, 이어주는 말의 기능, 시간표현, 상황과 말	언어의 창조적 쓰임, 새로운 낱말 만들기, 문장의 확대, 문장 사이의 연결 관계, 문장 고치기, 품위 있는 국어 사용

13) <6차-초3> 문장에는 풀이하는 문장, 묻는 문장, 감탄을 나타내는 문장이 있음을 알고, 이를 표시하는 문장 부호도 안다. <6차-초4> 풀이하는 문장, 묻는 문장, 감탄을 나타내는 문장, 시키는 문장, 권유하는 문장을 구분하고, 그 차이를 비교한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4차에서는 ‘낱자’에서 출발하여 ‘문장’까지 단 순 나열된 느낌이 강하다. 그것이 5차에서는 약간 다듬어지긴 했지만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는 다듬을 부분이 많다.

- (1) a. 풀이하는 문장, 묻는 문장, 시키는 문장, 감탄을 나타내는 문장, 권유하는 문장 등을 찾아보고, 그 차이를 밝힌다.
- b. 문장을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 각 부분을 다른 말로 대치하여 새로운 문장을 만든다.
- c. 낱말을 몇 개의 요소로 나누어 보고, 어느 한 요소를 바꾸어 새로운 낱말을 만든다.
- d.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또는 한 문장을 두 문장으로 만들면서, 문장을 축소시키거나 확장시킨다.

(1)은 5차의 내용인데 (1a)는 3학년과 4학년에, (1b)는 4학년과 5학년에, (1cd)는 5학년과 6학년에 중복되어 있다.<sup>14)</sup> 이는 4차 교육과정의 내용이 학년별로 거의 동일한 것이 약간 수정되긴 했지만 겹치는 부분이 남은 모습이다. 다음은 7차와 2007 개정의 내용이다.

<표 4> 초등학교 7차, 2007 개정의 성취기준 내용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차	낱자의 음가, 우리말 사용 태도	자음과 모음, 꾸며 주는 말, 고운 말 사용 태도	어순, 높임법, 이어주는 말, 바른말 사용 태도	용언, 문장의 종류, 어휘의 개념, 낱말 사이의 의미 관계,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태도	언어의 창조성, 시간 표현, 문장 성분, 표준어와 방언, 표준어 사용, 방언과 표준어	언어의 규칙성, 언어의 기호성,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문장사이의 연결 관계, 표준 발음법, 표준 발음

14) 이와 더불어 5학년과 6학년에 제시된 내용인 ‘두 문장을 이어 주는 말의 기능을 알고 활용한다(5학년)’와 ‘주어진 글의 각 문장들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문장 사이의 연결 관계를 살핀다(6학년)’도 거의 동일한 내용 제시로 보인다.



2007 개정	자모 이름과 소리, 소리와 표기, 문장 부호	소리를 혼동하기 쉬운 낱말, 표기와 소리가 다른 낱말의 표기, 낱말의 의미관계	사전 찾는 방법, 소리가 동일한 낱말의 의미, 의도에 따른 표현	표준어와 방언, 높임법, 문장 성분	반언어적 표현,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 시간 표현 방식, 언어 사용 방식	국어 어휘의 특징, 문장 연결 관계, 문장의 호응 관계, 한글의 우수성
---------	--------------------------	---	-------------------------------------	---------------------	---	---

<표 4>를 통해 7차에서는 다음에서처럼 ‘표준어’가 여러 곳에서 보인다.

- (2) a. 표준어와 방언의 개념을 안다.
- b. 공식적인 상황에서 표준어를 사용한다.
- c. 상황에 따라 방언과 표준어를 구별해서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 d.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한다.
- e. 상황에 따라 표준 발음으로 말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2)는 5학년(2abc)과 6학년(2de)의 ‘표준어’ 관련 내용이다. 물론 ‘표준어’라는 단어가 교육과정에 등장한 것은 6차 교육과정에서이다.<sup>15)</sup> 하지만 6차에서는 단순히 비교하여 들어보고 필요한 경우에 표준어로 말하려는 태도를 가질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7차에서는 5학년에 3개, 6학년에 2개의 성취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로 보아 ‘표준어’ 정책이 강조되었던 시기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달라진 부분은 또 있다.

- (3) a. 언어에는 규칙이 있음을 안다.
- b. 언어가 기호임을 안다.
- (4) 낱말과 낱말 사이의 유의 관계, 반의 관계, 하의 관계를 안다.

15) 4학년: 표준어와 방언을 비교하며 들어 보고, 필요한 경우에 표준어로 말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3-4)를 통해 7차에서는 ‘언어의 규칙성’이나 ‘언어의 기호성’과 ‘의미’ 관련 내용이 성취기준에 드러나 있다. (4)의 ‘의미’ 관련 내용이 6차에서는 중학교에 설정되어 있다가 초등학교 4학년으로 편성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다음으로 2007 개정에서는 ‘국어사전, 반언어적 표현, 한글의 우수성’ 관련 성취기준이 드러나 보인다.

- (5) a. 국어사전에서 낱말 찾는 방법을 안다.
- b. 반언어적 표현의 특성을 알고 의사소통에서의 역할을 이해한다.
- c. 한글의 의미를 알고 우수성을 설명한다.

(5a)는 국어사전과 관련된 것으로 3학년의 성취기준이다. 이는 2011 개정과 2015 개정에서도 제시되어 있는데<sup>16)</sup> 형태나 의미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같은 품사에 속하는 낱말들을 구별해 내는 활동을 통해 국어사전 찾기에 필요한 주요 품사를 변별할 수 있도록 하며 국어사전을 즐겨 찾는 습관을 지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이다. (5b)는 반언어적 표현 관련으로 5학년에 편성되었으나 이후의 교육과정에서는 없어졌다. (5c)는 ‘한글’과 관련된 것으로 6학년의 성취기준인데 ‘한글의 의의 이해하기, 한글의 우수성을 다른 문자 체계와 비교하여 말하기, 한글을 바르게 사용하고 가꾸려는 태도 가지기’ 등을 내용 요소의 예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후의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되었다. 다음은 2011 개정과 2015 개정의 내용이다.

---

16) 2011 개정 교육과정 [3-4학년군]에 ‘낱말들을 분류해 보고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아본다.’로 나온다.

<표 5> 초등학교 2011 개정, 2015 개정의 성취기준 내용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
2011 개정	낱자 이름과 소릿값, 고유어(토박이말), 낱말의 의미 관계, 문장의 기본 구조와 문장 부호	낱말의 소리와 표기, 표준어와 방언, 낱말 확장 방법과 어휘, 낱말 분류와 국어사전, 문장의 끝맺음, 높임법과 언어 예절	낱말(발음과 표기, 띄어쓰기), 상황에 따른 낱말의 해석, 국어 어휘(고유어, 외래어, 한자어), 질 연결 방식과 문장, 문장 성분과 호응 관계, 관용 표현의 사용
2015 개정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릿값, 소리와 표기, 문장부호, 글자, 낱말, 문장	낱말 분류와 국어사전, 낱말의 의미 관계, 문장의 짜임, 높임법과 언어예절, 한글에 대한 태도	언어와 국어생활, 낱말 확장 방법, 어휘력, 상황에 따른 낱말의 해석

<표 5>에서는 ‘상황에 따른 낱말의 해석’과 ‘관용 표현’이 눈에 띈다. 이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6) a. 낱말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됨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b. 관용표현의 특징을 알고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6a)는 낱말의 의미가 의사소통 상황에서 결정되며 이 상황에서 비유적 의미가 생기는 현상의 내용을 수용하였으며 (6b)는 국어 문화의 특성이 담긴 관용 표현을 통해 국어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설정하였는데 이후 교육과정에서는 없어졌다.

## 2) 중학교

다음으로 중학교 성취기준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6〉 중학교 교육과정별 성취기준 내용

	1학년	2학년	3학년
4차	문장의 성분, 문장의 종류, 품사, 음운변화	문장성분, 체언과 조사, 용언, 어간, 어미, 음운변화	문장의 호응, 단어의 종류, 품사, 음운 변화
5차	품사, 단어 형성, 단어의 의미 관계, 비문, 문장 성분, 문법 요소(사동, 피동, 시간 표현, 높임, 낮춤), 음운 변동, 언어 발달	품사, 단어 형성, 단어의 의미 관계, 비문, 문장 성분, 문법 요소(사동, 피동, 시간 표현, 높임, 낮춤), 음운 변동, 문장의 호응,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품사, 단어 형성, 단어의 의미 관계, 비문, 문장 성분, 문법 요소(사동, 피동, 시간 표현, 높임, 낮춤), 음운 변동, 문장의 연결 관계
6차	사회적 약속, 음운 변동, 품사, 단어의 짜임, 조사, 단어의 의미 관계(동음이의, 유의, 반의, 상하), 표준어	언어의 규칙성, 음운 체계, 용언의 활용, 문장의 기본 형식, 문장 구성 원리, 중의적이거나 관용적인 말, 국어 순화	언어 변화, 글자가 같은 단어, 문장의 전달 효과, 문법 요소, 문장의 연결 관계, 단어의 의미, 어법에 맞게 사용하는 태도
7차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음절, 형태소와 낱말, 낱말의 종류(은어, 전문어, 속어, 비어, 유행어),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담화, 국어 순화	언어의 사회성, 언어의 역사성, 음운 체계, 조어법, 관용어, 발화의 기능, 국어 사용의 문제점	남북한 언어의 차이, 음운 변동 규칙, 품사, 문장 성분과 문장 구성 원리, 문장 구조와 해석, 맞춤법
2007 개정	매체별 언어 사용 방식, 관용 표현, 품사, 사동·피동, 지시어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 어휘, 단어 형성법, 문장의 의미 해석, 상황 맥락에 따른 의미 해석(담화, 글)	언어의 특성(규칙성, 사회성, 역사성, 기호성, 창조성), 음운 체계, 문장의 짜임새, 담화 또는 글 구성의 개념, 한국어의 언어 문화적 특성과 가치
2009 개정	언어의 본질과 기능, 음운 체계, 어문 규범, 음운 변동, 단어의 짜임과 세말 원리, 품사, 문장 구조, 어휘의 유형과 의미 관계, 문법 요소, 담화의 개념과 특성, 한글의 창제 원리와 가치		
2015 개정	언어의 본질, 음운 체계, 단어의 발음과 표기, 품사, 어휘의 체계와 양상, 문장의 짜임과 양상, 담화의 개념과 특성, 한글 창제 원리, 통일 시대의 국어		

〈표 6〉에서 보는 것처럼 4차에서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핵심어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음운 변화’는 3년에 걸쳐서 계속 나온다. 차이가

있다면 1학년에서는 '음운 변화'의 주요 규칙을, 2학년에서는 '체계'를, 3학년에서는 '원인'에 초점이 있다. 5차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성취기준에 별 차이가 없다.<sup>17)</sup> 5차에서도 대부분의 성취기준은 같고 몇 개의 성취기준만 학년별로 차이가 난다. 먼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동일한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 (7) a. 단어를 품사로 분류해 보고, 각 품사의 특성을 밝히기
- b. 단어의 짜임새를 살펴보고, 우리말의 단어 형성 방법을 이야기하기
- c. 하나의 단어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되는 여러 단어들을 찾아보고, 각 단어들의 의미 관계를 분석하기
- d. 문과 비문을 구분하고, 문장이나 글에서 비문을 찾기
- e. 문장의 성분을 분석하고, 각 성분 사이의 관계와 문장의 구성 원리를 파악하기
- f. 문장이나 글 속에서 사동·피동, 시간 표현, 높임·낮춤 등에 관계되는 문법 요소를 찾아, 그 의미와 기능을 이야기하기
- g. 음운 변동의 주요 규칙을 알고, 그 원인을 밝히기

(7)은 5차에서 학년에 상관없이 등장한다. 교육과정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교과서에서 구체화되는 내용 또한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학년별로 달리 제시된 성취기준이다.

- (8) a. 성장 단계에 따른 유아의 언어를 관찰하고, 언어 발달에 관심을 가지기
- b. 문장과 문장 간의 호응 관계를 따지기
- c. 상황에 따라 언어의 사용이 달라짐을 알고, 적절하게 사용하기

---

17)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7개의 성취 기준의 내용이 동일하다.

- d.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 관계를 따져 보고, 글의 구성 원리를 파악하기

(8)은 학년별로 다른 성취기준인데 (8a)는 언어 발달, (8c)는 호응 관계, (8c)는 언어 예절과 높임법, (8d)는 접속 표현이다. 다음은 7차의 성취기준이다.

- (9) a.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한다.
- b.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 c.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비교한다.

(9)는 3학년에 설정된 성취기준인데 같은 학년에 ‘맞춤법’과 관련하여 비슷한 성취기준을 두 개나 설정할 정도로 맞춤법 교육을 강조했다 할 수 있지만 문제로 지적할 수도 있다. 그리고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설정한 점은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07 개정의 성취기준이다.

- (10) a. 표현 의도에 따라 사동·피동 표현이 달리 사용됨을 안다.
- b. 지시어가 글의 구조와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sup>18)</sup>
- c. 담화나 글의 의미 해석에 상황 맥락이 관여함을 이해한다.

(10)은 이전의 교육과정들과 달리 ‘사동·피동’, ‘지시어’, ‘상황 맥락’ 등을 설정하였다.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 ‘의미 해석’과 관련이 있다. (10a)도 표면적으로는 ‘사동·피동’이지만 지금까지 통사론적인 관점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졌던 내용이 아니라 ‘사동·피동’에 따라 ‘의미 해석 양상’이 달라지는

---

18) 이 성취기준은 범위가 너무 작은 성취 기준의 예로 지적되고 있다.

것이 중심이다. 또한 (10bc)도 마찬가지로 '의미 해석'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2007 개정에서는 이전의 교육과정과 달리 '의미 해석'이 강조되었다. 다음은 2011 개정과 2015 개정의 성취기준이다.

- (11) a. 한글의 창제 원리와 가치를 이해한다.
- b. 통일 시대의 국어에 관심을 가지는 태도를 지닌다.

2011 개정에서 (11a)는 한글이 지닌 가치와 과학적인 창제 원리를 통해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기르고 올바른 문자 생활에 대한 태도를 길러주기 위해 설정하였다. 2015 개정에서는 (11b)처럼 통일 시대를 대비함을 알 수 있다.

## 2. 성취기준의 행위동사

이 장에서는 성취기준의 행위동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초등학교

먼저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행위동사는 다음과 같다.

〈표 7〉 초등학교 교육과정별 성취기준의 행위동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4차	안다					
5차	익힌다, 찾는다, 만든다	찾는다, 만든다, 짓는다	이야기한다, 찾는다, 밝힌다	찾는다, 안다, 밝힌다, 만든다	만든다, 활용한다, 확장시킨다	만든다, 찾는다, 축소시킨다, 확장시킨다, 살핀다.
6차	안다,	찾는다,	발음한다,	찾는다,	안다,	안다,

	읽는다, 말한다, 만든다, 인식한다, (소중히) 여긴다.	표현한다, 만든다, 말한다, (태도를) 가진다.	말한다, 안다, (태도를) 가진다.	만든다, 비교한다, 사용한다, (태도를) 가진다	찾는다, 만든다, 사용한다, (태도를) 가진다	만든다, 살핀다, 고친다, (태도를) 가진다.
7차	안다, (태도를) 지닌다	구별한다, 안다	안다, 가진다	안다	안다, 사용한다, (태도를) 지닌다	안다, 발음한다, (태도를) 지닌다
2007 개정	안다, 이해한다	발음한다, 표기한다, 이해한다	안다, 분석한다, 설명한다	이해한다, 분석한다	이해한다, 사용한다, 안다	이해한다, 판단한다, 설 명한다
2011 개정	알고의 발음하고 쓴다, 익히고의(태도를)기른다, 알고 활용한다, 이해하고의 쓴다(사용한다),		알고의 발음하고 쓴다, 알고의 사용한다, 알고의 익힌다, 분류해 보고의 찾아본다, 알고의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한다		익힌다, 이해하고의 표현할 수 있다, 알고의 이해한다, 알고의 구성한다, 이해하고의 구성한다, 알고의 사용한다	
2015 개정	알고의 발음하고 쓴다, 알고 읽고 쓴다, 사용한다, 살펴보고 (흥미를)가진다		분류하고의 찾는다, 파악한다, 이해하고 사용한다, 알고의 사용한다, (태도를)지닌다		이해하고의 한다, 탐구하고의 적용한다. 탐구한다, 이해하고의 활용한다, 이해하고의 구성한다, (태도를)지닌다	

<표 7>에서 4차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안다’만 사용되었다. 이 교육 과정에서는 지식을 주입시키는 데 중심이 있음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5차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에서 ‘익힌다, 찾는다. 만든다’가 사용되었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새롭게 나오는 행위동사가 2학년에 ‘짓는다’, 3학년에 ‘이야기한다, 밝힌다’, 4학년에 ‘안다’, 5학년에 ‘활용한다, 축소시킨다, 확장시킨다’, 6학년에 ‘축소시킨다, 살핀다’가 새롭게 나온다. 6차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에서 ‘안다, 읽는다, 말한다, 만든다, 인식한다, (소중히) 여긴다’가 사용되었고 2학년에 ‘찾는다, 표현한다, (태도를)가진다’가, 3학년에 ‘발음한다’가, 4학년에 ‘비교한다, 사용한다’가, 6학년에 ‘살핀다, 고친다’가 새롭게



사용되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안다’를 중심으로 ‘구별한다, 가진다, 사용한다, 발음한다, (태도를)지닌다’ 등이 사용되었다. 2007 개정에서는 ‘안다, 이해한다, 발음한다, 표기한다, 분석한다, 설명한다, 사용한다, 판단한다’가 사용되었다. 2011 개정과 2015 개정에는 이전 교육과정과 달리 하나의 교육과정에 두 개 이상의 행위동사가 사용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취기준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줄어든 하나의 문장에는 내용이 두 개씩 들어있다고 보아야 한다. 성취기준의 행위동사도 6차 교육과정에서 가장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 2) 중학교

다음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행위동사이다.

〈표 8〉 중학교 교육과정별 성취기준의 행위동사

	1학년	2학년	3학년
4차	안다		
5차	분류해보고~밝히기, 살펴보고~이야기하기, 찾아보고~분석하기, 구분하고~찾기, 분석하고~파악하기, 찾아~이야기하기, 알고~밝히기, 관찰하고 관심 가지기	분류해보고~밝히기, 살펴보고~이야기하기, 찾아보고~분석하기, 구분하고~찾기, 분석하고~파악하기, 찾아~이야기하기, 알고~밝히기, 따지기, 알고~사용하기	분류해보고~밝히기, 살펴보고~이야기하기, 찾아보고~분석하기, 구분하고~찾기, 분석하고~파악하기, 찾아~이야기하기, 알고~밝히기, 따져보고~파악하기
6차	비교하여 보고~안다, 찾아보고~안다, 나누어 보고~안다, 알아보고~나누어 본다, 알아보고~만든다, 말하여 보고~찾는다, 알고~태도를 가진다,	들어 보고~안다, 알아보고~찾는다, 알아보고 ~고쳐 쓴다, 알아보고~분류한다, 알아보고~파악한다, 예를 들어 보고~사용한다, 예를 들어 보고~가진다.	비교하여 보고~안다, 찾아보고~알아본다, 만들어 보고~표현한다, 알아보고~고쳐쓴다, 말하여 보고~고쳐 쓴다, 알아보고~파악한다, 태도를 가진다.
7차	안다, 지닌다	안다, 지닌다	안다, 사용한다, 지닌다
2007	파악한다, 이해한다, 안다,	비교한다, 설명한다,	이해한다, 설명한다

개정	분석한다	활용한다, 이해한다	
2011 개정	이해한다, 사용한다, 표현할 수 있다, 활용한다, 사용할 수 있다, 한다		
2015 개정	한다, 이해한다, 발음하고 표기한다, 알고~활용한다, 탐구하고~활용한다, 태도를 지닌다		

<표 8>에서 보는 것처럼 4차에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안다’만 사용되었다. 5차와 6차는 하나의 성취기준에 두 가지의 행위 동사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5차에서는 문장의 끝을 명사형으로, 6차에서는 서술형으로 끝맺었다. 7차 이후의 교육과정 성취기준 행위동사는 4차에서처럼 단일 행위동사로 끝맺었다. 7차에서는 ‘안다’가 주로, 그 이외에 ‘지닌다(2회), 사용한다(1회)’만 사용되었다. 2007 개정에서는 7개의 동사가, 2009 개정에서는 6개의 동사가 사용되었다. 2015 개정에서는 하나의 성취기준에 하나의 동사가 사용된 문장이 주를 이루지만 두 성취기준에서 두 개의 동사를 사용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 행위동사를 살펴보면 중학교에서는 5차와 6차에서 두 개의 행위동사를 사용하다가 그 이후에는 하나가 사용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오히려 그와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 3) 초등학교와 중학교 비교

앞의 두 절에서 살펴보았던 초등학교와 중학교 성취기준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2) 안다, 이해한다, 파악한다, 분석한다, 비교한다, 사용한다, 설명한다, 활용한다, 태도를 가진다, 태도를 지닌다. 알고~활용한다

(12)는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행위동사인테 ‘안다, 이해한다, 파악한다’ 등의 내용 중심 동사<sup>19)</sup>와 ‘분석한다, 비교한다, 사용한다, 설명한다, 활용한다’의 활동 중심 동사와 ‘태도를 가진다, 태도를 지닌다’의 태도 중심의 동사가 모두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초등과 중등에서 (12)처럼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성취기준이다.

〈표 9〉 초·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유사한 행위동사

초등	중등
만든다	만들어 보고~표현한다
발음한다	발음하고 표기한다
분류하고~찾는다	분류해보고~밝히기
비교한다(초중)	비교하여 보고~안다
사용한다(초중)	사용할 수 있다
살핀다	살펴보고~이야기하기
알고~발음하고 쓴다	알고~밝히기
알고~사용할 수 있다,	알고~사용하기
알고~이해한다, 알고~익힌다	알고~태도를 가진다

〈표 9〉에서는 초등과 중등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사한 행위동사이다. 이들을 살펴보면 초등에서는 하나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면 중등에서는 두 가지의 행위가 주로 나타난다. 다음은 초등과 중등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다.

(13) a. 가진다, 고친다, 구별한다, 말한다, 밝힌다, 소중한 여긴다, 이야기한다, 익힌다, 인식한다, 읽는다, 짓는다, 축소시킨다, 판단한다, 표기한다, 확장시킨다.

b. 이해하고~구성한다, 이해하고~사용한다, 이해하고~표현할 수 있

19) 과학 교육과정 성취기준 분석 시 진술문에서 ‘안다, 이해한다’(단순인지동사)가 사용된 경우 ‘내용 중심 진술’로 분류하고, ‘활동 동사’(관찰한다. 조사한다. 찾는다. 등)가 사용된 경우 ‘활동 중심 진술’로 분류하였다.(백남진 2014: 112)

- 다, 이해하고~한다, 이해하고~활용한다, 익히고~(태도를)기른다.  
c. 알고 읽고 쓴다.

(14) a. 따지기, 지닌다, 한다

- b. 관찰하고 관심 가지기, 구분하고~찾기, 나누어 보고~안다, 들어 보고~안다, 따져 보고~파악하기, 말하여 보고~고쳐 쓴다, 말하여 보고~찾는다, 분석하고~파악하기, 알아보고~고쳐쓴다, 알아보고~나누어 본다, 알아보고~만든다, 알아보고~분류한다, 알아보고 찾는다, 알아보고~파악한다, 예를 들어 보고~가진다, 예를 들어 보고~사용한다

(13)은 초등학교에만, (14)는 중학교에만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13a)는 하나의 동사로, (13b)는 두 개, (13c)는 세 개의 동사가 사용된 경우이다. (13c)처럼 초등에서 3개의 동사가 사용된 경우가 1회 나타나기는 하지만 (13-14)에 보이는 것처럼 초등보다는 중등에서 주로 두 개의 동사가 사용됨을 알 수 있다.

#### IV. 마무리

이 연구는 초·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하여 국어 ‘문법’ 영역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국가 수준의 국어과 교육과정은 1955년 처음 제정되었으며 지금까지 열 차례 정도 개정·고시되었다. 이 중에서 ‘문법’ 영역이 설정된 것은 4차 교육과정부터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4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를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교과서는 2011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초·중학교 교과서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4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까지 7차례 개정된 국어과 교육 과정의 '문법' 영역 용어 변천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문법' 영역의 명칭은 '언어', '국어지식', '문법'으로 변해 왔고 '내용'의 용어도 '내용', '학년별 내용', '학년군별 세부 내용', '성취기준'으로 변해 온 것을 볼 수 있었다.

3장에서는 교육과정을 통해 '문법' 영역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의 흐름은 비슷했으나 서술어 사용에서 5차와 6차, 2011 개정과 2015 개정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서로 대립되는 흐름이었다. 즉, 초등학교에서는 하나의 성취기준에 하나의 행위동사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최근의 교육과정인 2011 개정과 2015 개정에서 두 개의 행위동사가 있는 겹문장 형태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중학교에서는 5차와 6차 교육과정에서 겹문장 형태를 사용하다가 그 이후에는 홑문장 형태를 사용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편찬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 개발 시 일관성을 지켜서 교과서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2), 『국어과 교육과정』
- 교육부(1992), 『국민학교 교육과정』
- 교육부(1992), 『중학교 교육과정』
- 교육부(1992), 『고등학교 교육과정』
- 교육부(1997), 『국어과 교육과정』
- 교육부(1997),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Ⅲ)
- 교육부(2015), 『국어과 교육과정』
- 교육인적자원부(1999), 『중학교 교육 과정 해설 Ⅱ』, 대한교과서.
- 교육인적자원부(2007), 『국어과 교육과정』, 대한교과서.
- 문교부(1981), 『국민학교 교육과정』
- 문교부(1981), 『중학교 교육과정』
- 문교부(1981), 『고등학교 교육과정』
- 문교부(1987), 『국민학교 교육과정』
- 문교부(1987), 『중학교 교육과정』
- 문교부(1988), 『고등학교 교육과정』
- 김광해(1997), 『국어 지식 교육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억조(2010), 「개정 교육과정 ‘문법’영역의 7학년 교과서 구현 양상 연구」, 『국제언어 문학』 제21호, 국제언어문학회.
- 김억조(2011),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서 구현 양상-8학년 ‘문법’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남민우·최숙기(2012),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 성취기준’의 적합성 조사 연구」, 『국어교육』 137, 한국어교육학회.
- 노명완 외(1996/2013), 『국어교육학개론』(제4판), 도서출판 삼지연.
- 노은희·최숙기·최영인(2012),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듣기·말하기’ 영역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학연구』44, 한국어교육학회.
- 백남진(2014), 「교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진술의 개선 방향 탐색」, 『교육과정연구』 32, 한국교육과정학회.
- 서영진(2013),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 성취 기준”의 진술 방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46, 한국어교육학회.

- 성열관·백병부·윤선인(2008), 『성취 기준의 차용 및 변용』, 『교육과정연구』 26(3), 한국교육과정학회.
- 손영애(1995), 『1차~5차 교육 과정 시기의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체제 및 내용 분석 연구』, 『국어교육』 89, 한국어교육학회.
- 손영애(2002), 『1~6차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체제 및 내용 분석 연구』, 『국어교육』 107, 한국어교육학회.
- 손영애(2012), 『고등학교 선택과목 변천에 관한 소론-“독서와 문법” 과목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93, 한국국어교육학회.
- 양정실·가은아·민재원(2014),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중학교 1-3학년군 내용 성취기준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연구』, 『국어교육』 145.
- 이남호·조혜숙·남궁민(2012),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어문교육』 11, 한국어문교육연구소.
- 이순영·최숙기·서민정(2012),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읽기’ 성취기준의 적합성 조사 연구: 현장 교사들의 적합성 평가 반응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27, 한국독서학회.
- 이현숙·강현석(2013), 『Bloom의 신교육목표분류학에 기초한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4),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 장은주·박영민·옥현진(2012), 『2009 국어과 교육과정 쓰기 영역 내용 성취기준의 적합성 조사 분석』, 『청람어문교육』 45, 청람어문교육학회.
- 정혜승(2007), 『성취 기준 중심 국어과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 123, 한국어교육학회.
- 주세형·이미숙·남민우(2012), 『국어과 교사의 “내용 성취 기준” 적합성 판단 양상 및 근거에 대하여』, 『국어교육』 139, 한국어교육학회.
- 허경철 외(1995), 『고등학교 국어, 중학교 수학 교육과정 상세화 및 평가 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황현미(2016),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제시 방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61,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Abstract**

## A Study on the term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Korean 'Grammar' Domain

Kim, Eok-Jo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flow of Korean grammar area and the use of terms through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Korean language curriculums and suggest improvements. It observed the flow of grammar education through the contents of 'grammar area' of Korean language curriculum, and grammatical terms used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Korean text books.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of national level was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in 1955, and has been revised and notified about 10 times. Among these, it can be said that 'grammar' area was established from the 4th Educational Curriculum. Thus, the study from the 4th Educational Curriculum to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was conducted.

What was discussed in this study can be stated as follows:

In Chapter 2, the study inquired into the 'grammar' area system of Korean language curriculum revised 7 times from the 4th Curriculum to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nd the changes of terms. As a result, it could be seen that the names in 'grammar' area have been changed into 'language', 'Korean language knowledge', 'grammar, and the terms of 'contents' have been changed into 'contents', the 'contents by grade', 'detailed contents by grade cluster' and 'achievement standard'.

In Chapter 3, as a result of looking into the contents of 'grammar' area, the flows of the curriculum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were similar, but the flows of the 5th and 6th Curriculums and those of 2011 and 2015 Revised Curriculum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were in contrast in use of predicates. Namely, in elementary school, a predicate tends to be used



by an achievement standard, and in recent 2011 and 2015 Revised Curriculums, two predicates were used in the form of a complex sentence with two predicates. However, in middle school, the form of a complex sentence was used in the 5th and 6th curriculums, and the form of a simple sentence has been used since then.

Key Word: Korean Textbook, grammar domain, terms, achievement standards, consistence, grade band, 2011 Revised Curriculum, 2015 Revised Curriculum

김억조

소속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 ukjokim@hanmail.net

이 논문은 2017년 4월 30일 투고되어  
2017년 6월 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7년 6월 9일 게재 확정됨.